

2024년 4월 21일. 21 April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1. My heart is steadfast, O God!
I will sing and make melody with all my being!
2. Awake, O harp and lyre!
I will awake the dawn!
3.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among the peoples;
I will sing praises to you among the nations.
4. For your steadfast love is great above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the clouds.
5.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시편 Psalm 108:1-5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죽음으로써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

사도행전 Acts 25:1-27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Now three days after Festus had arrived in the province, he went up to Jerusalem from Caesarea.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Jews laid out their case against Paul, and they urged him,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asking as a favor against Paul[a] that he summon him to Jerusalem—because they were planning an ambush to kill him on the way.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Festus replied that Paul was being kept at Caesarea and that he himself intended to go there shortly.
5.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So,” said he, “let the men of authority among you go down with me, and if there is

anything wrong about the man, let them bring charges against him.”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After he stayed among them not more than eight or ten days, he went down to Caesarea. And the next day he took his seat on the tribunal and ordered Paul to be brought.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When he had arrived, the Jew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stood around him, bringing many and serious charges against him that they could not prove.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Paul argued in his defense, “Neither against the law of the Jews, nor against the temple, nor against Caesar have I committed any offense.”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But Festus, wishing to do the Jews a favor, said to Paul, “Do you wish to go up to Jerusalem and there be tried on these charges before me?”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But Paul said, “I am standing before Caesar's tribunal, where I ought to be tried. To the Jews I have done no wrong, as you yourself know very well.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 대.

If then I am a wrongdoer and have committed anything for which I deserve to die, I do not seek to escape death. But if there is nothing to their charges against me, no one can give me up to them. I appeal to Caesar.”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Then Festus, when he had conferred with his council, answered, “To Caesar you have appealed; to Caesar you shall go.”

Paul Before Agrippa and Bernice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Now when some days had passed, Agrippa the king and Bernice arrived at Caesarea and greeted Festus.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And as they stayed there many days, Festus laid Paul's case before the king, saying, “There is a man left prisoner by Felix,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and when I was at Jerusale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Jews laid out their case against him, asking for a sentence of condemnation against him.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I answered them that it was not the custom of the Romans to give up anyone before the accused met the accusers face to face and had opportunity to make his defense concerning the charge laid against him.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So when they came together here, I made no delay, but on the next day took my seat on the tribunal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18.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When the accusers stood up, they brought no charge in his case of such evils as I supposed.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Rather they had certain points of dispute with him about their own religion and about a certain Jesus, who was dead, but whom Paul asserted to be alive.

20.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Being at a loss how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I asked whether he wanted to go to Jerusalem and be tried there regarding them.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그를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But when Paul had appealed to be kept in custody for the decision of the emperor, I ordered him to be held until I could send him to Caesar.”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더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Then Agrippa said to Festus, “I would like to hear the man myself.” “Tomorrow,” said he, “you will hear him.”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So on the next day Agrippa and Bernice came with great pomp, and they entered the audience hall with the military tribunes and the prominent men of the city. Then, at the command of Festus, Paul was brought in.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And Festus said, “King Agrippa and all who are present with us, you see this man

about whom the whole Jewish people petitioned me, both in Jerusalem and here, shouting that he ought not to live any longer.

25.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But I found that he had done nothing deserving death. And as he himself appealed to the emperor, I decided to go ahead and send him.

26.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자료를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But I have nothing definite to write to my lord about him. Therefore I have brought him before you all, and especially before you, King Agrippa, so that, after we have examined him, I may have something to write.

27.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For it seems to me unreasonable, in sending a prisoner, not to indicate the charges against him."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와 천부장, 그리고 총독 앞에서 심문을 받은 후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바울은 베스도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황을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하도록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행선지를 정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함은 가이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이사는 "네로"였습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바탕으로 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르심 받은 첫 날부터 이때까지 하나님 외에 의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서 구출하여 로마인의 손을 통하여 바울을 구원할 것입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가 로마를 향하여 품은 비전과 일치합니다. 그는 기왕에 제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비전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한 비전은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앞에서 변명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Acts 23:11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교사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로 가는 항로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those who sail with you."

사도행전 Acts 27:24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사도행전 Acts 27:25

로마에 가면 "안전"할 것입니까? 유대인들보다는 로마인들이 더 신사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다음 장 26장에서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한 말을 미리 들어보십시오.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And Agrippa said to Festus, "This man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사도행전 Acts 26:32

혹시라도 로마에 가면 유대인이 없을 테니까, 안전했을까요? 보십시오. 이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은 "아시아" 지역에서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미 온 세상에, 적어도 로마 제국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간다고 거기서 유대인의 위협을 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신 본문, 사도행전 25장을 살핍니다.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Now three days after Festus had arrived in the province, he went up to Jerusalem from
Caesarea.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Felix) 후임으로 베스도(Festus)가 부임했습니다. 삼일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Jews laid out their case against Paul,
and they urged him,

역시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높은 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asking as a favor against Paul[a] that he summon him to Jerusalem—because they were
planning an ambush to kill him on the way.

그들은 베스도가 자기들의 뜻을 살피,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적은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40여 명이 꾸민 계략이 유대인 지도층에게까지 침투되었습니다.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Festus replied that Paul was being kept at Caesarea and that he himself intended to go there shortly.

베스도의 대답은, 현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5.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So," said he, "let the men of authority among you go down with me, and if there is anything wrong about the man, let them bring charges against him."

대신 제안합니다.

너희 중 책임자들은 나와 동행하여 가이사랴로 가자. 그 사람이 불의하다면 거기서 고발하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After he stayed among them not more than eight or ten days, he went down to Caesarea. And the next day he took his seat on the tribunal and ordered Paul to be brought.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10일 가량을 머물렀습니다.

이후 가이사랴에 내려갔습니다. 도착 이튿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바울을 호출했습니다.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When he had arrived, the Jew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stood around him, bringing many and serious charges against him that they could not prove.

바울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특별히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Paul argued in his defense, "Neither against the law of the Jews, nor against the temple, nor against Caesar have I committed any offense."

바울이 변명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유대인의 율법에, 성전에
물론 가이사에게도.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But Festus, wishing to do the Jews a favor, said to Paul, "Do you wish to go up to Jerusalem and there be tried on these charges before me?"

그런데 보십시오. 베스도는 아무래도 "정치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했습니다. 이전에 빌라도가 그랬던 그대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겠느냐?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But Paul said, "I am standing before Caesar's tribunal, where I ought to be tried. To the Jews I have done no wrong, as you yourself know very well.

바울이 거절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 말에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곧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재차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 대.

If then I am a wrongdoer and have committed anything for which I deserve to die, I do not seek to escape death. But if there is nothing to their charges against me, no one can give me up to them. I appeal to Caesar."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 가정법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바울은 죽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이 가정은 당연히 긍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베스도 당신이라도 나를 그들의 손에 맡겨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마침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Then Festus, when he had conferred with his council, answered, “To Caesar you have appealed; to Caesar you shall go.”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Paul Before Agrippa and Bernice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Now when some days had passed, Agrippa the king and Bernice arrived at Caesarea and greeted Festus.

두 명의 헤롯 아그립바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1)는 “헤롯왕”으로 불리며,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한 자입니다(행 12:1-3). 그는 가이사랴에 갔다가, 백성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추앙할 때, 교만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행 12:23).

헤롯 아그립바 2세(Herod Agrippa II)는 Julius Marcus Agrippa로 불리기도 하는데,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자매는 버니게(Bernice)와 드루실라(Drusilla)입니다. 헤롯 아그립바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그립바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하던 기간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립바 2세였습니다.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And as they stayed there many days, Festus laid Paul's case before the king, saying, “There is a man left prisoner by Felix,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립바 2세에게 고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and when I was at Jerusale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Jews laid out their case against him, asking for a sentence of condemnation against him.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정죄를 청했습니다.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I answered them that it was not the custom of the Romans to give up anyone before the accused met the accusers face to face and had opportunity to make his defense concerning the charge laid against him.

그런데 내 대답은:

로마의 법에 따르면, 피고가 변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원고는 기다려야 한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So when they came together here, I made no delay, but on the next day took my seat on the tribunal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그래서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와 여기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내가 곧바로 그 이튿날 재판 자리를 열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18.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When the accusers stood up, they brought no charge in his case of such evils as I supposed.

그런데 원고들이 서서 고도하지만, 내 기대를 벗어나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Rather they had certain points of dispute with him about their own religion and about a certain Jesus, who was dead, but whom Paul asserted to be alive.

결국 자기들의 종교문제, 그리고 예수라는 이의 부활 문제 등으로 고소할 뿐이었습니다.

20.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Being at a loss how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I asked whether he wanted to go to Jerusalem and be tried there regarding them.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재판을 받겠는가, 물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의도를 베스도가 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의 비겁한 모습입니다.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그를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But when Paul had appealed to be kept in custody for the decision of the emperor, I ordered him to be held until I could send him to Caesar.”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지켜달라, 호소했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때까지 그를 지켜야 하므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더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Then Agrippa said to Festus, "I would like to hear the man myself." "Tomorrow," said he, "you will hear him."

거기까지 듣는 중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So on the next day Agrippa and Bernice came with great pomp, and they entered the audience hall with the military tribunes and the prominent men of the city. Then, at the command of Festus, Paul was brought in.

다음 날입니다.

아그립바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습니다.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자들이 함께 재판자리에 나왔습니다.

베스도가 명령하니, 바울이 나왔습니다.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And Festus said, "King Agrippa and all who are present with us, you see this man about whom the whole Jewish people petitioned me, both in Jerusalem and here, shouting that he ought not to live any longer.

베스도의 말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모든 여러분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외쳤던 자입니다.

이 대목에서 베스도는 "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라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내게 재판과 정죄를 청원했습니다.

25.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But I found that he had done nothing deserving death. And as he himself appealed to the emperor, I decided to go ahead and send him.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의 판단입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무죄라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천부장도, 벨릭스도 어떤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물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26.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자료를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But I have nothing definite to write to my lord about him. Therefore I have brought him before you all, and especially before you, King Agrippa, so that, after we have examined him, I may have something to write.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상소할 자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특히 아그립바 왕 앞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27.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For it seems to me unreasonable, in sending a prisoner, not to indicate the charges against him.”

어떤 죄목을 밝혀내야, 죄수에게 “죄목”을 정할 것이니까. 아니면 무리한 일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포함한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바울의 죄를 정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로마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아그립바 2세를 앞세워 바울을 심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 자리를 로마, 그리고 재판장을 가이사 네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재판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재판 받기 위하여 무슨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은 그 이름 뜻이 “나의 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가 이방의 땅에 살면서, 그를 시기 질투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도 대신들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재판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판단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모두가 다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일제 때 젊은 시인 윤동주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Looking up the heaven till the time of death
I hope not to be found any guilt
Even the wind touching the leaves
I have been suffered.

윤동주는 십자가를 바라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쫓아오든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The sunlight chased after me
now on the church
on the cross, it is staying.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디모데후서 2 Timothy 4:7-8

키에르케고르는(S. Kierkegaard)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히 주신 사명 그대로 달려갈 길을 달릴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발걸음입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누구에게든지 보내주시는 자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